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이론에 대한 고찰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尹基領*

A Study On the Theory of ‘Pungent and Sweet becoming Yang’ and ‘Sour and Sweet becoming Yin’

Yun Ki-ryoung*

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sweet flavor within the contexts of ‘pungent and sweet becoming Yang’ and ‘sour and sweet becoming Yin’ and the meaning of the two concepts.

Methods : Related contents in databases including the Siqu Quanshu were searched with ‘pungent and sweet becoming Yang’ and ‘sour and sweet becoming Yin’, whos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were examined.

Results & Conclusions : The theories of ‘pungent and sweet becoming Yang’ and ‘sour and sweet becoming Yin’ originate from Cheng Wuji’s comparison of the Gancaoqianjiangtang and Shaoyaogancaotang in the 29th verse of the *Shanghanlun*. The two terms first appeared in the Qing period among the Wenbing school. In other medical texts, the combination with sweet flavors could be found with salty, bitter and bland flavors other than with pungent and sour. The role of the sweet flavor in ‘pungent and sweet becoming Yang’ and ‘sour and sweet becoming Yin’ is to accomplish the dispersing and converging action slowly and effectively, by supplying energy in small amounts preventing it from happening too quickly, corresponding to its Earth nature of the Five Elements which harmonizes the Yin and Yang. While ‘becoming Yin’ and ‘becoming Yang’ could be understood as tonifying Yin and Yang, it could also be understood as ‘doing Yin’ and ‘doing Yang’, The specific actions differ according to herb and mixture. The point of distinction between the aforementioned tonification and that of medicinals that have Yin and Yang tonifying properties is that due to the other flavor that is matched with the sweet flavor, Qi is given motility which allows for tonification without stagnation.

Key words : pungent and sweet become Yang, sour and sweet become Yin, sweet flavor, matching of the five flavors, Cheng Wuji

* Corresponding Author : Yun Ki-ryou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el : +82-43-649-1342, E-mail : kgody@naver.com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anuary 28, 2022), Revised(April 21, 2022), Accepted(May 6,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五味는 四氣와 함께 한의학에서 本草를 분석하는 氣味論의 핵심 요소이다. 각 本草는 고유한 味를 가지며 이 味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 本草들이 모여 方劑를 구성하게 되므로 方劑의 특성을 분석할 때 本草들이 가지고 있는 味의 相合을 방법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方劑學에서 五味의 相合에 대한 연구는 자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五味의 相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중 한의학 原典에서 종종 보이는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용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桂枝湯의 설명에서 "炙甘草는 藥性を 조화시키는데, 桂枝와 배합하면 辛甘化陽하여 衛를 實하게 하고, 芍藥과 배합하면 酸甘化陰하여 營을 조화롭게 한다."¹⁾라는 서술을 볼 수 있다. 辛味와 酸味が 공통적으로 각각 甘味와 배합되었고, '化'라고 한 것은 변화의 의미로 배합으로 인해 원래는 없었지만 새로운 것을 발생시킨다는 의미로서 陽과 陰으로 化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辛味와 甘味, 酸味와 甘味の 배합으로 인해 陽과 陰을 발생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동양의학대사전』에서는 辛甘化陽의 의미를 '매운맛과 단맛이 나는 약을 동시에 사용하여 양기를 돕는 치료법'²⁾, 酸甘化陰의 의미를 '酸味와 甘味를 동시에 사용하여 益陰하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³⁾. 즉 化의 의미를 '돕다'와 '더한다'라는 의미로 밝히고 있다.

공통적으로 甘味が 활용되었다는 것은 五味의 相合 중 甘味에 특수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에 甘味에 辛味와 酸味が 결합하여 化하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五味에 대한 기초 연구⁴⁾는 일부 있었지만, 五味

의 化合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이론과 임상응용에 대한 학위논문이 각각 있었는데⁵⁾, 辛甘化陽法의 원류는 『黃帝內經』, 酸甘化陰法의 원류는 貴陰淺陽의 이론을 근거로 『連山易』, 『歸藏易』으로 소급하였고, 각 용어들의 의미와 기전을 밝히기보다는 각각에 해당하는 方劑와 그들을 활용한 의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밖에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에 대한 논문⁶⁾들은 辛味, 酸味, 甘味の 작용을 化가 아닌 단순한 습으로서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 밝힘으로써 五味의 相合에서 甘味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甘味를 바탕으로 한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용어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甘味の 역할로 두 용어의 기전과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四庫全書 등 검색 DB에서 辛甘化陽, 酸甘化陰 등을 검색하여 각 문헌에서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였는지 살펴보려 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成無己의 辛甘, 酸甘相合

成無己는 辛甘化陽, 酸甘化陰 이론과 관련된 의가로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원문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는 연구되지 않았다⁷⁾. '辛甘化陽',

원전학회지. 2007. 20(4). pp.81-90.

5) 章蕾. 辛甘化陽法의理論源流與臨床應用. 湖南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劉劍. 酸甘化陰法의理論源流及臨床應用. 廣西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6) 王騰飛 외 5인. 從“五味化”思想談“辛甘化陽, 酸甘化陰”. 中醫雜誌. 2013. 54(19). pp.1705-1707.

姚建平, 馬書娟. “辛甘化陽與酸甘化陰”陰陽屬性解析. 光明中醫. 2010. 25(1). pp.100-101.

7) 章蕾. 辛甘化陽法의理論源流與臨床應用. 湖南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p.2.

1) 한의학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편저. 韓醫方劑學 각론 上. 파주. 군자출판사. 2020. pp.23-24.

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6).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168.

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4).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p.534-535.

4) 백유상.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酸甘化陰’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成無己는 『注解傷寒論』과 『傷寒明理論』 등에서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간칭)을 인용하여 『傷寒論』의 여러 처방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특히 運氣篇의 六淫에 대한 五味 運用의 조문을 인용하여 註釋하였다⁸⁾. 이 중 辛味와 酸味が 각각 甘味와 合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辛甘相合

辛甘味가 合하여 나타나는 작용에 대해서 成無己는 桂枝湯, 甘草乾薑湯, 四逆湯, 大青龍湯, 小青龍湯, 五苓散, 小柴胡湯, 大柴胡湯,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柴胡桂枝乾薑湯, 桂枝附子湯, 甘草附子湯, 麻黃連軀赤小豆湯, 乾薑黃連芩人參湯, 竹葉石膏湯, 建中湯 등 다양한 처방에서 언급하였다.

먼저 發散의 작용을 들었는데, 桂枝湯을 설명하면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辛甘發散爲陽’⁹⁾과 『素問·至真要大論』의 ‘風淫所勝’과 ‘風淫於內’의 치료원칙¹⁰⁾을 인용하여 辛味の 桂枝와 生薑, 甘味の 甘草와 大棗가 合하여 風邪를 發散하는 辛甘之劑라고 하였다¹¹⁾. 그리고 風邪를 發散함에 치료원칙에 따라 辛味の 桂枝를 君藥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¹²⁾.

大青龍湯을 설명할 때는 辛甘味가 合하여 榮衛의 風寒을 發散한다고 하였는데, 辛味와 甘味를 구별하여 風邪는 辛味が 散하고 寒邪는 甘味が 發한다고 하였다¹³⁾. 甘味が 寒邪를 發한다는 것은 金의 辛味が 木의 風邪를 散하는 金克木처럼 土克水의 五行相克의 이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寒邪로 인해 收引하는 것을 甘味로 緩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桂枝의 辛味와 麻黃의 甘味が 合하여 輕劑로써 發散하는 것뿐만 아니라 石膏라는 甘辛味の 重劑가 陰陽 즉 寒邪와 風邪를 散한다고 하였다¹⁴⁾. 石膏는 微寒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風寒邪를 散한다는 것은 氣보다는 辛甘의 배합에 의한 작용을 더 중시한 것이다. 이밖에 四逆湯의 설명에서는 甘草, 乾薑, 附子가 合하여 辛甘味가 陰陽之氣를 發散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¹⁵⁾, 여기서의 陰陽之氣 또한 風寒邪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처방들이 風寒邪를 發散하는 것이었다면, 桂枝甘草龍骨牡蠣湯에서는 桂枝의 辛味와 甘草의 甘味が 經 中の 火邪를 發散시키고¹⁶⁾, 竹葉石膏湯에서는 竹葉, 石膏, 甘草의 甘辛味が 남은 熱을 發散시

劉劍. 酸甘化陰法의理論源流及臨床應用. 廣西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p.6.
 8) 백유상.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3.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6. “風淫所勝, 平以辛涼,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瀉之.”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5. “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辛散之.”
 11)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64. “內經曰: 辛甘發散爲陽. 桂枝湯, 辛甘之劑也. 所以發散風邪. 內經曰: 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收之. 是以桂枝爲主, 芍藥甘草爲佐也. 內經曰: 風淫於內, 以甘緩之, 以辛散之. 是以生薑大棗爲使也.”
 12)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傷寒明理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82. “桂, 味辛熱, 用以爲君, 必謂桂猶主也, 宣道諸藥, 爲之先聘, 是猶辛甘發散爲陽之意. 蓋發散風邪, 必以辛爲主, 故桂枝所以爲君也. 芍藥味苦酸微寒, 甘草味甘平, 二物用以爲臣佐. 內經所謂: 風淫所勝, 平以

辛, 佐以苦, 以甘緩之, 以酸收之, 是以芍藥爲臣, 而甘草爲佐也.”

13)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72. “辛甘均爲發散. 然風宜辛散, 寒宜甘發, 辛甘相合, 乃能發散榮衛之風寒. 麻黃甘草石膏杏仁, 以發散榮中之寒, 桂枝薑棗, 以解除衛中之風.”
 14)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83. “麻黃味甘溫, 桂枝味辛熱. 寒則傷榮, 必以甘緩之. 風則傷衛, 必以辛散之. 此風寒兩傷, 榮衛俱病, 故以甘辛相合, 而爲發散之劑. 表虛膚緩者, 則以桂枝爲主, 此以表實腠理密, 則以麻黃爲主, 是先麻黃後桂枝. 茲麻黃爲君, 桂枝爲臣也. 甘草味甘平, 杏仁味甘苦, 苦甘爲助, 佐麻黃以發表. 大棗味甘溫, 生薑味辛溫, 辛甘相合, 佐桂枝以解肌. 石膏味甘辛微寒. 風陽邪也, 寒陰邪也. 風則傷陽, 寒則傷陰. 榮衛陰陽, 爲風寒兩傷, 則非輕劑所能獨散也, 必須輕重之劑以同散之, 乃得陰陽之邪俱已. 榮衛之氣俱和, 是以石膏爲使. 石膏爲重劑, 而又專達肌表者也.”
 15)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68. “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又曰: 寒淫所勝, 平以辛熱. 甘草薑附相合, 爲甘辛大熱之劑, 乃可發散陰陽之氣.”
 16)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87. “辛甘發散, 桂枝甘草之辛甘, 以發散經中之火邪, 澀可去脫, 龍骨牡蠣之澀, 以收斂浮越之正氣.”

킨다고 하였다¹⁷⁾. 甘草附子湯에서는 附子, 白朮의 辛甘味가 濕氣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¹⁸⁾.

다음으로 成無己는 辛甘味가 합하여 和의 역할을 함을 주장하였다. 五苓散의 설명에서 역시 '辛甘發散爲陽'을 인용하여 桂枝의 辛甘味가 肌表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다¹⁹⁾. 大柴胡湯에서는 生薑, 大棗의 辛甘味가 榮衛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는데²⁰⁾, 桂枝附子湯에서는 구체적으로 生薑, 大棗의 辛甘味가 榮衛를 行하고 津液을 通하게 하고 表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다²¹⁾. 이런 작용들은 辛甘味の 배합에 의한 직접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앞에서 邪氣를 發散한 이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辛甘味가 합하여 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甘草乾薑湯의 설명에서 역시 '辛甘發散爲陽'을 인용하여 甘味の 甘草와 辛味の 乾薑이 합하여 陽氣를 회복시킨다고 하였는데²²⁾, 이는 29조의 원문²³⁾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乾薑黃連黃芩人蔘湯의 설명에서는 乾薑과 人蔘의 甘辛味가 正氣를 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正氣는 陽氣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²⁴⁾. 建中湯의 설명에서는 生薑의 辛味로 陽인 衛를 더하고 甘味の 大棗로 陰인 榮을 더하여 辛甘味가 相合하여 脾胃가 굳세져서 榮衛가 통한다고 하였는데²⁵⁾, 이것은 辛味와 甘味를 陽과 陰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甘味를 陰으로 본 것은 甘味가 陽에 속하는 味이기도 하지만 氣의 흐름을 느슨하게 하는 陰한 성질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辛味로써 上焦인 胃에서 나오는 衛를 더하고, 甘味로써 中焦인 脾에서 나오는 榮을 더하여 결과적으로 脾胃가 굳세진다고 하였다. 脾胃가 營衛의 근원이지만 『內經』의 '衛出於上焦'²⁶⁾에 연결하기 위해 胃를 上焦로 본 것은 오류로 보이는데, 辛味, 甘味の 배합으로 각각 營衛를 補한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成無己는 특정 本草들의 辛味와 甘味가 합해졌을 때 혹은 한 本草가 가지고 있는 辛甘味가 風寒邪나 火邪, 濕邪 등을 發散하거나, 榮衛를 조화롭게 하거나 陽氣를 補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辛味와 甘味の 배합은 꼭 두 本草의 합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本草 안에 辛甘味가 있다면 그 자체로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注解傷寒論』에서 같은 味라고 하더라도 本草에 따라 다른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설한 것과 같이²⁷⁾, 같은 辛味와 甘味の 배합도 각각의 本草에 따라 상이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다만 成無己가 설명한 辛味와 甘味の 배합에 따른 작용은 각 味가 가진 작용들의 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작용이 생겨난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7)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6. “辛甘發散而除熱, 竹葉石膏甘草之甘辛, 以發散餘熱, 甘緩脾而益氣, 麥門冬人參粳米之甘, 以補不足, 辛者散也, 氣逆者, 欲其散, 半夏之辛, 以散逆氣.”

18)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1. “桂枝甘草之辛甘, 發散風邪而固衛, 附子白朮之辛甘, 解濕氣而溫經.”

19)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77. “淡者一也. 口入一而爲甘, 甘甚而反淡, 甘緩而淡滲. 豬苓白朮茯苓三味之甘, 潤虛燥而利津液, 鹹味下泄爲陰, 澤瀉之鹹, 以泄伏水, 辛甘發散爲陽, 桂枝之辛甘, 以和肌表.”

20)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83. “柴胡黃芩之苦, 入心而折熱, 枳實芍藥之酸苦, 滯泄而扶陰. 辛者散也, 半夏之辛, 以散逆氣, 辛甘和也, 薑棗之辛甘, 以和榮衛.”

21)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1. “風在表者, 散以桂枝甘草之辛甘, 濕在經者, 逐以附子之辛熱, 薑棗辛甘行榮衛, 通津液, 以和表也.”

22)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67. “內經曰: 辛甘發散爲陽, 甘草乾薑相合, 以復陽氣.”

23) 李順保 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413.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吐逆者, 先作甘草乾薑湯與之, 復其陽氣.”

24)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0. “辛以散之, 甘以緩之, 乾薑人參之甘辛, 以補正氣, 苦以泄之, 黃連黃芩之苦, 以通寒格.”

25)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90. “生薑味辛溫, 大棗味甘溫, 胃者, 衛之源, 脾者, 榮之本, 黃帝針經曰: 榮出中焦, 衛出上焦是矣. 衛爲陽, 不足者益之必以辛, 榮爲陰, 不足者補之必以甘, 辛甘相合, 脾胃健而榮衛通, 是以薑棗爲使.”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1.

27) 趙學俊, 김호현, 임강현. 本草의 同味異用에 對한 研究 -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위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1). p.110.

2) 酸甘相合

成無己는 酸甘味が 합하여 나타나는 작용은 辛甘味の 相合에 비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29조의 芍藥甘草湯에 대한 설명에서 芍藥의 酸味와 甘草의 甘味が 합하여 陰血을 補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²⁸⁾. 이것은 앞서 甘草乾薑湯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29조의 조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²⁹⁾, 甘草乾薑湯을 주어서 陽氣를 회복시킨 뒤에 芍藥甘草湯을 주어서 다리가 펴지는 것을 陰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收의 성질을 가진 酸味와 緩의 성질을 가진 甘味が 어떻게 陰血을 補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成無己가 설명한 것처럼 張仲景이 『傷寒雜病論』의 처방들을 만들 때 『內經』의 五味論에 입각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芍藥을 酸味로 인식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傷寒雜病論』과 비슷한 시기의 『神農本草經』을 살펴보면 芍藥이 苦味로 되어 있고³⁰⁾, 이후의 『名醫別錄』에 芍藥이 酸味로 되어 있다³¹⁾³²⁾.

3) 『內經』의 五味論

여기서 成無己가 相合 특히 辛甘相合의 근거로 든 『內經』의 五味論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內

經』에서는 五味의 작용에 대한 여러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素問·藏氣法時論』의 “辛散, 酸收, 甘緩, 苦堅, 鹹軟.”³³⁾은 五味의 작용을 서술한 것이다. 成無己가 『傷寒論』의 처방을 설명하면서 辛甘相合에 인용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氣味,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³⁴⁾이라고 하여 辛味, 甘味는 發散하고, 酸味, 苦味는 涌泄하여 각각 陽과 陰의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 六者或收或散, 或緩或急, 或燥或潤, 或溼或堅, 以所利而行之, 調其氣使其平也.”³⁵⁾라고 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언급한 味 외에 鹹味는 涌泄하여 陰의 작용을 하고, 淡味는 滲泄하여 陽의 작용을 한다고 하여 五味에 淡味를 더한 六味 각각의 작용을 서술하였다. 이 내용들은 각 味를 단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견 없이 이 두 편의 문장을 설명하였다. 특히하게 高世栻는 『素問·至眞要大論』의 문장을 味가 서로 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오미의 음양의 작용은 피차 서로 도와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배운 맛은 발산을 주관하는데, 안으로부터 밖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단 맛으로써 돕기 때문에 맵고 단 맛이 발산을 할 수 있어서 양에 속한다. 쓴 맛은 솟아오르고 쏟아내는 것을 주관하는데, 가운데로부터 위로 솟아오르고 가운데로부터 아래로 쏟아내는 것은 반드시 신 맛으로써 돕기 때문에 시고 쓴 맛이 솟아오르고 쏟아낼 수 있어서 음에 속한다. 짠 맛은 젖게 하면서 내려가므로 아래로 쏟아낼 수 있는 것을 주관하는데, 아래로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곧 위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짠 맛은 솟아오르고 쏟아내서 음이 된다. 오미 이외에 또 담백한 맛이 있는데 담백한 맛은 적시고 스며드는 것을 주관하니, 적시고 스며들 수 있다면 곧 새는 것을 할 수 있으므로 담백한 맛은

28)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67. “芍藥, 白補而赤瀉, 白收而赤散也. 酸以收之, 甘以緩之, 酸甘相合, 用補陰血.”

29) 李順保 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413.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吐逆者, 先作甘草乾薑湯與之, 復其陽氣, 若厥愈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即伸.”

30) 清·顧觀光 輯, 楊鶴舉 校注. 神農本草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49. “芍藥, 味苦, 平. 主邪氣腹痛, 除血痹, 破堅積, 寒熱, 疝瘕, 止痛, 利小便, 益氣. 生山谷及丘陵.”

31) 梁·陶弘景 集, 尚志鈞 輯校. 名醫別錄(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117-118. “味酸, 微寒, 有小毒. 主通順血脈, 緩中, 散惡血, 逐賊血, 去水氣, 利膀胱大小腸, 消癰腫, 時行寒熱, 中惡, 腹痛, 腰痛. 一名白木, 一名餘容, 一名犁食, 一名解食, 一名誕. 生中岳及丘陵. 二月八月采根, 暴乾.(須丸爲之使, 惡石斛芒硝, 畏消石礬甲小蘗, 反藜蘆.)

32) 현재의 본초학 교과서에서 赤芍藥의 氣味는 微寒苦, 白芍藥의 氣味는 微寒苦酸으로 되어 있다. (한의학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10. p.237, 635.)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9.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4.

스며들고 새서 양이 된다. 이것이 맵고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담백한 여섯 가지의 맛이 기미가 비록 다르더라도 공과 작용이 서로 돕는 것이다. 혹 거두고 혹 흠어지는 것은 거두면서 흠어질 수 있고, 흠어지면서 거둘 수 있다. 혹 느슨하고 혹 당기는 것은 느슨하면서 당길 수 있고, 당기면서 느슨할 수 있다. 혹 마르고 혹 젖는 것은 마르면서 젖을 수 있고, 젖으면서 마를 수 있다. 혹 부드럽고 혹 단단한 것은 부드러우면서 단단할 수 있고, 단단하면서 부드러울 수 있다. 이것이 오미의 음양이 서로 도와서 공이 되는 것이다.³⁶⁾

高世栻은 辛味와 苦味가 각각 發散과 涌泄의 작용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甘味와 酸味の 도움이 있어야 작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辛甘味와 酸苦味를 합하여 發散과 涌泄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석한 것인데, 鹹味와 淡味는 따로 해석한 것과 뒤에 이어지는 “六者或收或散, 或緩或急, 或燥或潤, 或稟或堅, 以所利而行之, 調其氣使其平也.”와 연결한다면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은 味의 배합에 대한 문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것을 배합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成無己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辛甘發散爲陽’을 인용하면서 陽에 속하는 辛味와 甘味の 相合을 이야기했다면, ‘辛甘發散爲陽’ 뒤에 이어지는 ‘酸苦涌泄爲陰’에 따라 酸苦相合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味の 相合은 『內經』의 運氣篇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運氣篇에는 처방 형성의 기본 원리인 君臣佐使 이론³⁷⁾이 나타나 있고, 六淫과 三陰三

陽의 勝復, 六氣의 反勝에 따라 『素問·藏氣法時論』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味를 결합하여 치료에 활용하는 원칙 또한 찾아볼 수 있다³⁸⁾. 각각의 味를 조합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味가 결합하여 어떻게 작용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六淫에서는 太陰이 司天한 濕淫所勝에서 ‘濕上甚而熱’한 경우³⁹⁾, 陽明이 在泉한 燥淫於內的 경우⁴⁰⁾ 佐藥으로 甘辛味를 사용하였다. 三陰三陽의 勝復에서는 太陰과 陽明이 勝한 경우⁴¹⁾ 佐藥으로 甘辛味를 사용하였고, 厥陰과 太陽이 復한 경우⁴²⁾ 佐藥으로 甘辛味를 사용하였다. 六氣의 反勝에서는 在泉의 寒氣에 熱이 反勝한 경우⁴³⁾ 佐藥으로 甘辛味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酸甘味를 사용한 경우는 이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成無己 이전의 宋代 『類證活人書』에서는 厥陰證의 치료법에서 “마땅히 급히 배꼽 아래를 뜸을 떼야 한다. 신열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양기로 하여금 회복되어 크게 땀이 나서 풀리게 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매운 맛과 단 맛은 발산하여 양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계지, 감초, 건강, 부자의 류를 이르니 양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미미하면 매운

36) 清·高士宗 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684. “五味陰陽之用, 彼此相濟以成. 如辛主發散, 從內而外, 必濟以甘, 故辛甘之味, 爲能發散而屬乎陽. 苦主涌泄, 從中上涌, 從中下泄, 必濟以酸, 故酸苦之味, 爲能涌泄而屬於陰. 鹹味潤下, 主能下泄, 能下泄, 卽能上涌, 故鹹味涌泄爲陰. 五味之外, 復有淡味, 淡主漬滲, 能漬滲, 卽能行泄, 故淡味泄滲爲陽. 此辛甘酸苦鹹淡六者, 氣味雖殊, 功用相濟. 或收或散者, 收而能散, 散而能收也. 或緩或急者, 緩而能急, 急而能緩也. 或燥或潤者, 燥而能潤, 潤而能燥也. 或稟或堅者, 稟而能堅, 堅而能稟也. 此五味陰陽相濟, 以爲功也.”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4. “君一臣二, 制之小也, 君一臣三佐五, 制之中也, 君一臣三佐九, 制之大也.”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5. “主病之謂君, 佐君之謂臣, 應臣之謂使, 非上下三品之謂也.”
38) 백유상.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27.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6. “濕淫所勝, 平以苦熱, 佐以酸辛, 以苦燥之, 以淡泄之. 濕上甚而熱,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汗爲故而止.”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5. “燥淫於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297-298. “太陰之勝, 治以鹹熱, 佐以辛甘, 以苦瀉之……陽明之勝, 治以酸溫, 佐以辛甘, 以苦泄之.”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297-298. “厥陰之復, 治以酸寒, 佐以甘辛, 以酸瀉之, 以甘緩之……太陽之復, 治以鹹熱, 佐以甘辛, 以苦堅之.”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7. “寒司于地, 熱反勝之, 治以鹹冷, 佐以甘辛, 以苦平之.”

맛과 단맛을 쓰고, 심하면 매운 맛과 쓴 맛을 쓴다. 음이 극하면 조동하게 되는 것을 발하고 음증이 양과 같아지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맥으로써 구별해야 한다.”⁴⁴⁾라고 하여 陽의 작용을 하는 辛味와 甘味는 陽氣를 회복하는 작용을 하므로 辛味를 중심으로 둘을 결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陽氣 회복에 甘味보다는 辛味를 중심으로 보았고, 심할 때 사용하는 苦味는 陰이 극하여 나타나는 陽證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陽毒의 치료에서 “마땅히 시고 쓴 약으로 음기로 하여금 회복되어 크게 땀이 나서 풀리게 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 맛과 쓴 맛은 융설하여 음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고삼, 대청, 정령, 고주의 류를 이르니 음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미미하면 쓴 맛을 쓰고, 심하면 신 맛과 쓴 맛을 겸하여 쓰는데, 열을 꺾고 음을 회복시킨다. 만약 열이 극하면 곱하게 되는 것을 발하고 양증이 음과 같아지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맥으로써 구별해야 한다.”⁴⁵⁾라고 하여 陰의 작용을 하는 酸味와 苦味는 陰氣를 회복하는 작용을 하므로 苦味를 중심으로 둘을 결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溫熱涼寒 四氣에 대한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고, 辛甘味와 酸苦味의 결합으로 인한 發散과 涌泄을 각각 陽氣와 陰氣가 회복된다고 서술하였다. 이것은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의 문장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陽과 陰에 해당하는 味끼리 함께 써서 새로운 작용을 만든다고 보다는 각각 陽氣와 陰氣를 회복시키고 결과적으로 陽의 작용과 陰의 작용을 배가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成無己 이후의 『普濟方』에서도 “대개 양병에는 마땅히 시거나 쓴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미미하면 쓴 맛을 쓰고, 심하면 곱하여 쓴다. 음병에는 마땅히 맵거나 단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미미하면 매운 맛과 단 맛을 쓰고 심하면 매운 맛을 전적으로 쓴다.”⁴⁶⁾라고 하여 역시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의 문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成無己는 陰에 속하는 酸味와 陽에 속하는 甘味가 서로 합하는 것을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成無己의 酸甘相合은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과는 긴밀한 관련이 없다.

따라서 成無己는 『內經』보다는 단지 『傷寒論』 29조의 桂枝甘草湯과 芍藥甘草湯이 대비되는 것을 근거로 酸甘相合의 이론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傷寒論』의 다른 처방들에서도 酸味와 甘味の 배합이 나타나지만 별다른 註釋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후 많은 의가들은 成無己의 영향을 받아 甘草乾薑湯 혹은 桂枝甘草湯을 辛甘化陽, 芍藥甘草湯을 酸甘化陰의 대표 처방으로 설명하였다.

2. 清代의 辛甘化陽, 酸甘化陰

1) 『絳雪園古方選注』의 辛甘化陽, 酸甘化陰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용어는 明代까지의 醫書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 용어 모두 『臨證指南醫案』(1766)에서 비교적 먼저 나오는 醫書로 제시하였는데⁴⁷⁾, 논자의 검색 결과 이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王子接의 『絳雪園古方選注』(1732)에서 두 용어를 찾을 수 있었다. 비록 王子接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용어들을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후의 여러 의서에서 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44) 田思勝 主編.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1. “當急灸臍下, 服以辛熱之藥, 令陽氣復而大汗解矣. 古人云: 辛甘發散爲陽, 謂桂枝甘草乾薑附子之類, 能復其陽氣也. 微用辛甘, 甚則用辛苦, 陰極發躁, 陰證似陽, 學人當以脈別之.”

45) 田思勝 主編.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2. “當以酸苦之藥, 令陰氣復而大汗解矣. 古人云: 酸苦涌泄爲陰. 謂苦參大青葶藶苦酒之類能復其陰氣也. 微用苦, 甚則兼用酸苦折熱復陰, 若熱極發厥, 陽證似陰, 陰證似陽, 與前段陰證似陽, 俱當以脈別之.” 學人當以脈別之.”

46)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 Jan. 2022] : Available from: URL: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52943&page=110> “大凡陽病當投酸苦之藥, 微則用苦, 甚則兼用之. 陰病當投辛甘之藥, 微則用辛甘, 甚則專用辛.”

47) 章蕾. 辛甘化陽法的理論源流及臨床應用. 湖南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p.2.
劉劍. 酸甘化陰法的理論源流及臨床應用. 廣西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 2018. p.6.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용어는 18세기 清代에 醫家들에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絳雪園古方選注』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桂枝湯의 설명에서는 桂枝와 甘草의 辛甘化陽으로 太陽을 도와 肌氣를 融會시키고, 芍藥과 甘草의 酸甘化陰으로 少陰을 열어 營血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였다⁴⁸⁾. 즉 甘味를 중심으로 辛味와 배합되면 太陽의 表에 작용하는 것이고, 酸味와 배합되면 少陰의 裏에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桂枝加芍藥湯에서는 芍藥과 甘草의 酸甘味の 조합으로 太陰의 主藥이 된다고 하였다⁴⁹⁾.

甘草乾薑湯과 桂枝甘草湯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辛甘化陽이지만 桂枝는 表로 가서 太陽의 表虛를 다스리고 乾薑은 中焦를 지켜서 少陰의 裏虛를 다스린다고 하였다⁵⁰⁾. 이것은 같은 辛味와 甘味の 조합이지만 그 味를 가지고 있는 本草에 따라 化陽의 작용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理中湯 및 理中丸에서는 人參, 甘草의 甘味が 陰을 조화롭게 하고, 白朮, 乾薑의 辛味が 陽을 조화롭게 하여 대비되는 辛味와 甘味の 조합으로 陰陽이 자연히 조화롭게 된다고 하였다⁵¹⁾. 辛味를 陽에, 甘味를 陰에 배속하는 것은 『注解傷寒論』의 建中湯의 설명에서 보인 것과 유사하다.

大順散에서는 甘草와 乾薑을 같이 볶으면서 辛甘化陽하여 脾欲을 快하게 한다고 하였는데⁵²⁾, 이 처방은 暑濕이 脾를 傷하여 陽氣를 막아 吐瀉가 일어

나는 것을 치료한다.

安胃湯에서는 辛味와 酸味를 함께 써서 肝氣를 化하고, 酸味와 甘味를 함께 써서 胃氣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였다⁵³⁾. 甘味が 脾胃를 補하는 것이라면 辛味와 酸味를 함께 써서 肝氣를 化한다는 것은 肝을 瀉하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木克土의 작용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胃를 편안하게 하는 처방이다.

정리하면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용어가 처음 사용된 『絳雪園古方選注』에서는 化陽과 化陰에 대해 중앙에 작용하는 甘味에 배합되는 辛味와 酸味로 인해 각각 대체로 외부, 내부에 작용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化陽으로 陽氣를 補하거나 陽의 작용을 더하는 것은 일부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酸味와 甘味の 배합으로 化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2) 溫病學派의 辛甘化陽, 酸甘化陰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이론은 『臨證指南醫案』 이후 溫病學派에게 다수 활용된 개념이다. 이에 각각의 溫病學 저서에서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臨證指南醫案』

① 辛甘化陽

辛味와 甘味の 배합은 『臨證指南醫案』에서 자주 나타난다. 辛味와 甘味の 습으로 인해 陽氣를 補하는 일반적인 예는 ‘回陽辛甘’, ‘辛甘溫中補虛, 痛減.’, ‘辛甘理陽’, ‘辛甘溫理陽’, ‘溫陽辛甘’, ‘辛甘益氣’, ‘辛甘溫暖’, ‘甘辛溫暖’, ‘辛甘助上’, ‘辛甘溫補’ 등의 표현으로 여러 번 나온다⁵⁴⁾. 辛甘味로 脾를 補한다는 ‘補脾辛甘’⁵⁵⁾의 표현도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辛甘化陽의 용례 또한 볼 수 있는데, 먼저 虛勞의 범주 중 營虛에 속하는 환자를 치료하

48)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13. “桂枝甘草辛甘化陽, 助太陽融會肌氣, 芍藥甘草酸甘化陰, 啓少陰奠安營血.”

49)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13. “將芍藥一味, 倍加三兩, 佐以甘草, 酸甘相輔, 恰合太陰之主藥.”

50)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38. “甘草乾薑湯, 桂枝甘草湯, 同爲辛甘化陽, 而有分頭異治之道. 桂枝走表, 治太陽表虛. 乾薑守中, 治少陰裏虛.”

51)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39. “人參甘草甘以和陰也, 白朮乾薑辛以和陽也, 辛甘相輔以處中, 則陰陽自然和順矣.”

52)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86. “先將甘草乾薑同炒, 辛甘化陽以快脾欲.”

53)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109. “統論全方, 辛酸同用, 以化肝氣, 酸甘相輔, 以和胃氣, 肝化胃和, 自能進穀.”

54)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84, 95, 107, 161, 181, 182, 189, 208, 210, 211, 283, 285.

55)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320.

는 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⁶⁾. 어떤 환자가 過勞로 인해 陽氣를 손상하였는데, 李東垣의 甘溫除熱法을 사용하였으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였다. 脘腹痛이 있는 것은 和補로 營衛가 운행되게 하였고, 후에 右脈이 濡하고 來去한 것이 澀하여 辛甘化陽의 방법으로 大建中湯을 사용하였다. 乾薑이 없는 등 『金匱要略』의 大建中湯과는 다르나 전체적으로 辛味와 甘味の 조합으로 化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脈이 濡하다는 것은 陽이 虛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化陽은 建中하여 陽氣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의안의 범주를 陽虛가 아닌 營虛에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陽이 虛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建中을 통해 營衛를 조화시키면서도 營을 補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厥心痛에 대한 龔商年의 서술에서 心營이 傷하여 세계 놀렸을 때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증상으로 攻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人參, 桂枝, 川椒, 炙甘草, 白蜜 등으로 치료하여 辛甘味로 化陽한다고 한 것과⁵⁷⁾, 產後 婦人의 寒腹痛에 대하여 當歸 桂枝湯을 사용하여 辛甘化陽으로 營衛를 조화시킨다고 한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⁵⁸⁾.

위와 같이 辛甘味の 배합으로 인해 陰을 補하는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風溫化燥로 인한 咳嗽을 辛甘涼潤劑를 활용하여 치료하였는데⁵⁹⁾, 구성 本草를 본다면 여러 甘味가 있고 辛味에 해당

하는 것은 杏仁이다. 辛甘味の 배합으로 風溫化燥를 치료하는 것은 風溫邪를 發散하는 의미와 辛以潤之와 甘味로 인해 陰을 補하여 燥를 치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液耗로 인한 便閉를 치료하거나⁶⁰⁾ 營虛(營絡胃陽兼虛)로 인한 胃痛을 치료하는데⁶¹⁾ 辛甘法을 제시하였다. 產後 虛證의 경우에는 燥藥을 쥐서는 안 되고, 甘辛한 약으로 肝腎을 潤補하는 치법을 제시하였다⁶²⁾.

마지막으로 『臨證指南醫案』에서는 ‘辛甘化風’과 ‘辛甘熄風’의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⁶³⁾. 痰이 動하여 風이 生하거나 營衛가 虛하여 汗이 나거나 오래된 疝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치법을 사용하였다. 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辛味와 甘味の 배합으로 어떻게 化風 즉 熄風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肝陰虛로 인한 肝風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甘酸味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⁶⁴⁾, 그 이외에도 辛甘味の 활용을 들고 있다. 內風으로 인해 頭眩, 耳鳴, 目珠痛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 發散이나 清法을 쓰지 못한다고 하여 辛甘化風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⁵⁾. 枸杞子, 當歸身, 女貞子 등을 활용하여 補肝한다고 하였는데, 쓰인 本草로 본다면 이것은 辛甘味로 인해 肝陽이 아닌 肝陰

56)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44-45. “陸 勞傷陽氣, 不肯復元, 秋冬之交, 余宗東垣甘溫爲法, 原得小效. 衆楚交喙柴葛枳朴是餌, 二氣散越, 交紐失固, 閃氣疼痛, 脘中痞結, 皆清陽凋喪, 無攻痛成法, 唯以和補, 使營衛之行, 冀其少緩神蘇而已. 人參 當歸 炒白芍 桂心 炙草 茯神 又 右脈濡, 來去澀, 辛甘化陽, 用大建中湯. 人參 桂心 歸身 川椒 茯苓 炙草 白芍 飴糖 南棗.”

57)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242. “重按而痛稍衰者, 用人參桂枝川椒炙草白蜜治之, 以其心營受傷, 攻劫難施. 爲之辛甘以化陽也.”

58)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540. “遇寒腹痛, 用當歸桂枝湯, 辛甘化陽, 以和營衛.”

59)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41. “宋(二一) 脈右浮數, 風溫干肺化燥, 喉間癢, 咳不爽, 用辛甘涼潤劑. 桑葉 玉竹 大沙參 甜杏仁 生甘草 糯米湯煎.”

60)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23. “吳 液耗便艱, 進辛甘法. 杞子 柏子仁 歸身 沙苑 炒山楂.”

61)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244. “顧(五一) 營虛胃痛, 進以辛甘. 當歸(一錢半) 甜桂枝(一錢) 茯苓(三錢) 炙草(五分) 煨薑(一錢半) 南棗肉(二錢).”

62)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275. “顧(五一) 營虛胃痛, 進以辛甘. 當歸(一錢半) 甜桂枝(一錢) 茯苓(三錢) 炙草(五分) 煨薑(一錢半) 南棗肉(二錢).”

63)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83, 126, 221, 238, 239, 296.

64)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5. “某 內風, 乃身中陽氣之動變, 甘酸之屬宜之(肝陰虛) 生地 阿膠 牡蠣 炙草 黃肉炭.”

65)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6. “陳(四五) 操持煩勞, 五志陽氣, 挾內風上擾清空, 頭眩耳鳴, 目珠痛. 但身中陽化內風, 非發散可解, 非沉寒可清. 與六氣火風迥異. 用辛甘化風方法, 仍是補肝用意. 枸杞子 桂圓肉 歸身 炙草 甘菊炭 女貞子.”

을 補하여 內風을 없애는 것을 보여주는 의안이다. 血燥로 인하여 風이 生하는 것에도 辛甘味로 熄風한다고 하였는데, 辛甘味로 血을 補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酸甘化陰

酸味와 甘味の 배합 또한 『臨證指南醫案』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進以甘酸, 充養胃陰.”, “諒進甘酸, 解其煩渴.”, “甘酸固澀”, “酸甘濟陰”, “酸甘, 益陰和陽.”, “甘酸救津” 등⁶⁶⁾ 결과적으로 陰液을 補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酸甘化陰의 용례는 泄瀉의 범주 중 肝犯胃에 속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⁷⁾. 陰火內風이 동하여 津液을 마르게 하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腹痛이 있으며 바로 泄瀉하는 경우에 肝胃를 함께 치료하는 방법으로 酸甘化陰의 처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化陰은 陰液을 補한다는 의미 외에도 白芍藥 등의 酸味로 肝을 柔하게 하여 木克土를 잘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甘味로 胃를 보호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肝陽犯胃上逆으로 인한 頭痛을 치료하는 법에서도 역시 酸甘味の 배합을 쓰고 있다⁶⁸⁾.

그리고 病가 陰液을 傷함에 속하는 환자를 치료할 때, 胃津이 劫奪하여 陰液이 크게 소모된 경우 酸甘化陰의 처방을 담은 처방을 사용한다고 하였고⁶⁹⁾, 產後 尊勞로 인해 液이 마른 환자에 대한 의안에서 酸甘化陰으로 扶胃한다고 하였다⁷⁰⁾. 두 의안

모두 烏梅, 木瓜 등의 酸味와 炙草 등의 甘味로써 유사한 작용을 나타낸다. 그 밖에 噎膈反胃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酸甘化液而直滋清’을 제시하고 있다⁷¹⁾.

정리하면 『臨證指南醫案』의 辛甘化陽과 酸甘化陰 모두 中焦의 脾胃를 補하여 陽氣와 陰液을 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治法으로 볼 수 있지만 辛甘化陽의 이론에는 補陽보다는 補陰에 치중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이것은 溫病學派인 葉天士가 陰液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溫病條辨

葉天士의 뒤를 이어 溫病學을 발전시킨 吳鞠通은 각각의 本草의 氣味를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氣味 이론을 활용하여 처방을 설명하였다⁷²⁾. 그의 모 든 저서에서 여러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溫病條辨』을 중심으로 다수 나타나는 辛甘味와 酸甘味の 배합 중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이론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辛甘化陽

『溫病條辨』에서는 『臨證指南醫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辛甘溫陽法’, ‘甘辛從陽化以勝陰也’의 용어가 보인다⁷³⁾. 風溫을 치료하는 辛涼輕劑의 桑菊飲의 方論에서는 辛甘化風, 辛涼微苦의 처방이라고 설명

66)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11.

67)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350. “潘 入夜咽乾欲嘔, 食納腹痛即瀉. 此胃口大傷, 陰火內風劫燥津液. 當以肝胃同治, 用酸甘化陰方. 人參(一錢半) 焦白芍(三錢) 訶子皮(七分) 炙草(五分) 陳倉米(三錢).”

68)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46, 179, 210, 240, 287, 311.

69)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368-369. “蔡 脈右數, 左細數, 面垢舌燥, 白苔點點, 肌膚甲錯, 左脇動氣, 伏暑當秋涼而發. 初病如瘧, 當從苦辛寒法. 裏邪熾烈, 變爲下痢, 胃津被劫, 陰液大耗, 昔賢於熱病液潤, 急以救陰爲務. 苟胃關得蘇, 漸以冀安. 否則犯喻氏所指‘客邪內陷, 液枯致危’之戒矣. 復脈湯去薑桂麻. 又 酸甘化陰法. 人參 生地 烏梅 炙草 麥冬 木瓜.”

70)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535. “汪 產後百日, 寒熱消渴, 心痛惡食, 瀉瀉. 此尊勞液潤, 已屬沉痾難治. 擬酸甘化陰扶胃, 望其小安而已. 人參 烏梅 炙草 赤石脂 木瓜 茯神 炒梗米.”

71)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91. “是證每因血枯氣衰致此, 凡香燥消澀之藥, 久在禁內. 案中雖有一二仿用辛熱, 而亦必諦審其爲陽微濁踞者, 其餘或苦辛泄滯而兼潤養, 或酸甘化液而直滋清, 或鬱悶於氣分而推揚殺氣, 或勞傷於血分而宜通瘀濁, 總以調化機關, 和潤血脈爲主. ‘陽氣結於上, 陰液衰於下’二語, 實爲證之確切論也.(姚亦陶)”

72) 李海鵬. 氣味配伍在《溫病條辨》中的靈活運用.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3. 15(11). p.180.

73)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 94, 95.

하였다⁷⁴⁾.

辛甘化陽에 대해서는 加味參苓白朮散의 처방에서 원 처방인 參苓白朮散은 甘淡微苦한 것에 비하여 加味한 후 辛甘化陽한다고 하였다⁷⁵⁾. 현재의 本草學 교과서에 근거하여 가미한 本草들의 味를 살펴보았을 때 肉苁蓉과 砂仁이 辛味를 가지고 있는데, 吳鞠通은 이 두 가지 本草가 下焦의 鬱滯를 통하게 하면서 脾陽을 일깨운다고 하였다⁷⁶⁾.

② 酸甘化陰

『溫病條辨』에서 酸甘化陰의 서술은 辛甘化陽에 비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注解傷寒論』에 비교한다면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溫病學派에서 『傷寒論』에 비해 상대적으로 胃陰 등 陰을 補하는 개념을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溫病條辨·中焦篇·濕溫』에서는 瘧邪가 胃陰을 손상하는 것을 밝힌 조문의 주에서 “음 손상됨이 이미 정해졌다면 위음을 회복하는 것은 감한한 것만한 것이 없는데, 산미를 겹치는 것은 산감미로 음을 화하기 때문이다.”⁷⁷⁾라고 하였다. 酸甘化陰의 처방으로는 生脈散類, 麥冬麻仁湯, 人參烏梅湯, 六味地黃丸⁷⁸⁾ 등을 제시하였다. 甘味는 여러 本草를 사용하였고, 酸味에 사용한 本草는 五味子和 烏梅 등이다.

③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을 동시 활용

吳鞠通은 일부 처방에서 氣味の 배율을 합쳐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複法’이라고 하였다. 複

法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랜 병은 한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⁷⁹⁾,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을 동시에 활용한 처방으로 清暑益氣湯, 參芍湯 등이 있다.

吳鞠通은 太陽中暈에 清暑益氣湯을 쓸 수 있다고 하였는데,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複法을 담은 처방이라고 하였다⁸⁰⁾. 葛根, 生薑 등의 辛味, 五味子 등의 酸味와 麥門冬, 大棗 등의 甘味를 합하여 氣陰兩傷의 證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休息痢로 下焦의 陰陽이 모두 虛한 경우에는 附子の 辛味, 白芍藥, 五味子の 酸味와 人參, 炙甘草의 甘味를 승한 參芍湯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溫病條辨』의 辛甘化陽과 酸甘化陰 역시 脾胃를 補하는 작용이 있는데, 『臨證指南醫案』과는 다르게 각각 化陽과 化陰이라는 용어가 글자 그대로 陽과 陰을 化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다른 의서의 辛甘化陽, 酸甘化陰

溫病學派 이외에도 陳修園, 唐宗海, 張錫純 등은 그들의 의서에서 앞에서 언급한 비슷한 개념으로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辛甘味로 인해 陽氣를 補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金匱要略·婦人產後病脈證治』의 竹皮大丸의 조문⁸¹⁾에 대해 尤怡는 『金匱要略心典』에서 桂枝와 甘草의 조합으로 辛甘化氣한다고 하였다⁸²⁾. 婦인이 產後에 授乳를 하여 體內的 氣血이 부족한 中虛가 되고 그로 인해 熱이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낸 조문인

74)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

75)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 “加味參苓白朮散方(本方甘淡微苦法, 加則辛甘化陽, 芳香悅脾, 微辛以通, 微苦以降也) 人參(二錢) 白朮(一錢五分, 炒) 茯苓(一錢五分) 扁豆(二錢, 炒) 薏仁(一錢五分) 桔梗(一錢) 砂仁(七分, 炒) 炮薑(一錢) 肉豆蔻(一錢) 炙甘草(五分).”

76)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 “砂仁肉苁蓉從下焦固澀濁氣, 二物皆芳香, 能澀滑脫, 而又能通下焦之鬱滯, 兼醒脾陽也.”

77)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 “陰傷既定, 復胃陰者莫若甘寒, 複酸味者, 酸甘化陰也.”

78)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 31, 34, 69, 85, 96, 97, 98, 116.

79)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6. “凡複法, 皆久病未可以一法了事者.”

80)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 “清暑益氣湯方(辛甘化陽酸甘化陰複法) 黃芪(一錢) 黃柏(一錢) 麥冬(二錢) 青皮(一錢) 白朮(一錢五分) 升麻(三分) 當歸(七分) 炙草(一錢) 神麩(一錢) 人參(一錢) 澤瀉(一錢) 五味子(八分) 陳皮(一錢) 蒼朮(一錢五分) 葛根(三分) 生薑(二片) 大棗(二枚).”

81) 金景範 편저.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p.566. “婦人乳中虛, 煩亂嘔逆, 安中益氣, 竹皮大丸主之. 竹皮大丸方 生竹茹二分 石膏一分 桂枝一分 甘草七分 白薇一分.”

82)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0. “桂枝甘草, 辛甘化氣.”

데, 辛甘味の 조합으로 中焦의 氣를 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辛甘化氣'라고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周學海의 『讀醫隨筆·承制生化論』을 살펴보면 “병에는 화하는 기가 있고, 약에도 또한 화하는 기가 있으니, 예를 들어 산미와 감미가 음을 화하고 신미와 감미가 양을 화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잘 쓰는 자는 또 병의 거짓의 기를 빌려서 약의 참된 힘을 도우니 이것이 곧 병법의 '빌려서 어루만진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또 이르기를 '화한 기의 힘이 본기보다 심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가 화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그 사람의 정기가 허한 것 때문이니 사기의 힘이 두터우면 사람의 정기를 이길 수 있어서 이에 양인이 화하여 도적이 되어 도리어 사람의 기를 끼고 돌아와서 사람을 상하게 한다.”⁸³⁾라고 하여 用藥의 법칙 중 하나로서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을 언급하였다. 병이 상하게 하고, 약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化氣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약의 氣가 병의 氣보다 강하여 병의 氣를 빌려서 약의 힘을 도와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약의 氣가 병의 氣보다 강하게 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辛甘과 酸甘의 약으로 볼 때 周學海는 甘味の 補하는 작용을 중시하여 辛甘化陽, 酸甘化陰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清代 이후 여러 의가들이 辛甘化陽, 酸甘化陰을 언급하였고, 앞의 周學海의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기전을 밝히지는 않았다. 石壽棠이 『醫原·兒科論』에서 酸甘化陰의 기전을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옛적에 전중양이 소아를 위하여 육미환을 만든 것은 신 맛과 단 맛이 음을 화생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신 맛은 수의 맛이고, 단 맛은 토의 맛이다. 나무는 물이 아니면 생겨나지 않고, 흙이 아니면 실리지 않는다. 나무열매는 처음에 열린 것은 신 맛이 많으니 나

무의 본 맛을 받은 것과 같은데, 성숙하면 순진한 단 맛이니 감미가 합하여 토로 화하여 토의 바른 맛을 온전히 얻은 것이다. 오미는 오직 단 맛만이 독이 없고 감운한 것은 수토의 기운이 충족됨을 얻었으므로 액을 불어나게 할 수 있다.⁸⁴⁾

小兒에게 六味丸을 쓰는 것에 대해서 酸味와 甘味를 모두 중시하여 化陰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六味丸을 酸甘化陰의 이론을 담고 있는 처방으로 인식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甘味가 많고 酸味가 적어서 小兒를 甘味와 연관된 胃氣와 연결한 吳鞠通의 주장⁸⁵⁾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다. 石壽棠은 酸甘化陰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六味丸이 滋液할 수 있는 이유로 甲木과 己土가 합하여 土로 化하고, 甘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小兒는 木德을 가지고 있고, 存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小兒가 酸味와 甘味の 배합으로 인하여 陰을 化하는 것을 마치 나무가 水와 土로 인해 자라는 것에 비유하였다. 하지만 酸味를 木의 味가 아닌 水의 味라고 한 것부터 근거가 없다. 그리고 夫婦五行과 甘味の 滋液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酸甘化陰에만 적용될 뿐이며 辛甘化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3. 기타 味와 甘味와의 결합

지금까지 辛味, 酸味와 甘味가 결합하는 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辛味는 陽, 酸味는 陰에 속하여 甘味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작용을 나타내는데, 五味에 淡味를 더한 六味 중 辛味, 酸味, 甘味를 제외하면 淡味, 鹹味, 苦味가 남는다. 鹹味, 苦味の 경우 각각의 작용은 있지만 『素問·至真要大論』에서 언급한 涌泄 작용이 酸味와 같으므로 역시 甘味와의 결

83)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5. “病有化氣. 藥亦有化氣. 如酸甘化陰, 辛甘化陽是也. 善用者, 且能借病之假氣, 以助藥之眞力, 是即兵法之招撫者也. 昔人又謂化氣之力, 甚於本氣. 蓋氣之所以能化者, 必其人之正虛, 而邪氣之力厚, 有以勝夫人之正氣, 於是化良爲寇, 反挾人之氣以還而傷人.”

84) 清·石壽棠 撰.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60. “昔錢仲陽爲小兒制六味丸, 取酸甘化陰之義. 酸, 水味也, 甘, 土味也. 木非水不生, 非土不載. 木實初結多酸, 猶稟木之本味, 成熟則純甘, 甲己合而化土, 全得土之正味. 五味惟甘爲無毒, 甘潤得水土氣足, 故能滋液.”

85)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6. “胃氣者, 甘味也, 木離土則死, 再驗之木實, 則更知其所以然矣. 木實惟初春之梅子酸多甘少, 其他皆甘多酸少者也. 故調小兒之味, 宜甘多酸少, 如錢仲陽之六味丸是也.”

함이 가능하다. 세 가지 味와 甘味が 결합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鹹甘

鹹味와 甘味の 조합에 대한 것은 清代 雷豊의 『時病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雷豊은 ‘夏傷於暑’의 擬用諸法으로 辛溫解表法 등 총 17개의 治法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甘鹹養陰法이다⁸⁶⁾. 熱이 血絡을 傷하여 陰分에 손상을 시켜 潮熱과 咳嗽가 나타나는 증상에 甘鹹養陰法을 사용하였다. 甘味와 鹹味の 조합으로 陰을 기르는데, 특히 五行의 相生 관계에서 甘味の 土와 鹹味の 水 사이의 金의 陰을 길러 肺의 熱로 인한 咳嗽 증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清代 鄭欽安의 『醫法圓通』에서는 肺痿와 肺癰의 治법을 辛甘化陽, 甘鹹養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⁸⁷⁾. 肺痿와 肺癰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각각 『金匱要略』의 甘草乾薑湯과 白茱丸을 들었다. 肺痿는 肺에 潤澤함이 없는 것인데, 眞氣가 위로 薰蒸하지 못해 肺陽이 부족한 肺冷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辛甘化陽의 治법을 쓴다. 肺癰은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인데, 熱이 잠복하여 없어지지 못해 水가 衰하고 火가 왕성한, 肺陰이 부족한 肺熱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甘鹹養陰의 治법을 쓴다. 『時病論』과 비교하였을 때, 甘鹹養陰法을 肺의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苦甘

苦味와 甘味の 조합에 대한 것은 清代 柯琴의 『傷寒附益』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⁸⁾. 下利에 대한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太陽陽明合病에서 寒邪가 陽明之經에 들어가 脾로 옮겨가서 陰盛陽虛한 경우에 辛甘味の 葛根湯을 주어 陽을 지키고, 太陽少陽合病에서 熱邪가 少陽之裏에 들어가 脾로 옮겨가서 陽盛陰虛한 경우에 苦甘味の 黃芩湯을 주어 陰을 보존한다고 하였다. 辛甘味와 苦甘味에 공통적으로 쓰인 甘味는 脾에 邪氣가 옮겨갔으므로 脾를 實하게 하는 것이고, 辛味는 甘味와 함께 쓰여 寒邪를 發散하는 것이고, 苦味는 甘味와 함께 쓰여 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溫病條辨』에서는 冬地三黃湯과 黃土湯에서 ‘甘苦合化陰氣法’⁸⁹⁾, ‘甘苦合用’⁹⁰⁾이라고 하여 甘味와 苦味를 합하여 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吳鞠通醫案』에서는 苦甘化陰의 목적이 木火가 有餘하여 溫熱로 인한 發疹이 일어난 후 7일 제에 熱이 남아 있어 下法을 쓴 후에 陰을 보호하기 위함⁹¹⁾이라고 하였다.

陳元犀는 기존 成無己 이후 芍藥甘草湯을 酸甘化陰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芍藥을 苦味로 보아 苦甘化陰이라고 정의하였으며⁹²⁾ 張錫純 등도 그를 따

86) 清·雷豊 著, 楊梅香 鄭金生 校點. 時病論.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10. p.79. “甘鹹養陰法 治熱傷血絡, 損及陰分, 潮熱咳嗽. 大乾地(四錢) 龜版(三錢, 炙) 阿膠(二錢, 另燉沖) 旱蓮草(三錢) 女貞子(二錢) 牡丹皮(一錢五分) 加淡菜三錢, 井水煎服. 法中乾地甘寒, 龜版鹹寒, 皆養陰之要藥. 阿膠甘平, 淡菜鹹溫, 並治血之佳珍.”

87) 清·鄭欽安 著, 周鴻飛 點校. 醫法圓通.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p.15-16. “按癰痿二證, 名異而源同, 痿虛而癰實. 痿宜溫肺, 《金匱》之甘草乾薑湯是也, 癰宜開壅, 《金匱》之白茱丸是也. 余細維《金匱》治痿證, 首列甘草乾薑湯, 明是辛甘化陽之法, 必是肺冷無疑. 再以‘痿’字義考之, 萎者, 謝也, 如花木之葉萎, 敗而無潤澤, 其源定屬坎中眞氣不上薰蒸. 若坎中既有眞氣上騰, 肺何由而得萎也? 而治癰以白茱丸, 明是甘鹹養陰之法, 必是肺熱無疑. 更以‘癰’字義考之, 癰者, 壅也, 壅則聚而不通, 熱伏不潰之象, 其源定屬水衰火旺. 然癰之將成未成, 其中尚有許多治法. 果系胸中噎膈脈數滑口中辟辟燥唾膿血臥難安, 此際乃癰之候, 否則照常治嗽法投之. 余意當以‘肺陽不足而癰證生, 肺陰不足而癰證起’以定此二案, 後學始有把握, 庶不致錯亂無據也.”

88) 清·柯琴 編撰, 張海鵬 陳潤花 校注. 傷寒來蘇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28. “太陽陽明合病, 是寒邪初入陽明之經, 胃家未實, 移寒於脾, 故自下利. 此陰盛陽虛, 與葛根湯辛甘發散以維陽也. 太陽少陽合病, 是熱邪陷入少陽之裏, 膽火肆逆, 移熱於脾, 故自下利. 此陽盛陰虛, 與黃芩湯苦甘相濟以存陰也.”

89)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3. “冬地三黃湯方(甘苦合化陰氣法) 麥冬(八錢) 黃連(一錢) 葦根汁(半酒杯, 沖) 人參(四錢) 黃柏(一錢) 銀花露(半酒杯, 沖) 細生地(四錢) 黃芩(一錢) 生甘草(三錢).”

90)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9. “黃土湯方(甘苦合用剛柔互濟法) 甘草(三兩) 乾地黃(三兩) 白朮(三兩) 附子(三兩, 炮) 阿膠(三兩) 黃芩(三兩) 竈中黃土(半斤)”

91)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吳鞠通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7. “初七日 其勢已殺, 其焰未寧. 下後護陰爲主, 用甘苦化陰.”

92)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長沙方歌括』, 北京. 中國中

랐다.

鄭欽安은 특별히 苦甘化陰의 처방을 중시한 의가로 알려져 있다⁹³⁾. 芍藥甘草湯 역시 苦甘化陰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며 辛甘化陽과 苦甘化陰을 용약의 총칙으로 규정하였다⁹⁴⁾.

3) 淡甘

淡味는 『素問·至眞要大論』에서 ‘淡味滲泄爲陽’이라고 하여 滲泄하는 작용을 하면서 陽에 속한다고 하였다. 淡味와 甘味가 조합되는 것은 『素問·刺法論』의 “비를 실하게 하고자 하면 기가 막힘이 없어야 하고 배부른 채로 오래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 신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일체의 날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 맛이 마땅하며 담백한 맛이 마땅합니다.”⁹⁵⁾에 근거한다면 健脾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溫病條辨』에서는 小兒의 疳疾을 치료하는 처방 중 하나로 ‘甘淡養胃’를 제시하였다⁹⁶⁾.

이 밖에 『本經逢原』의 地骨皮에 대한 설명에서 “『본경』에서 ‘오장의 열사의 기와 주비의 풍습을 주관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달고 담백한 맛이 열을 화하는 것을 취하고 고한한 미가 습을 흡으니 습이 흡어지면 착비가 통하게 되고, 열을 화하면 오장이 편안하다.”⁹⁷⁾라고 하였다. 甘味가 補하면서 虛한 것을 치료하고, 淡味가 滲泄시키는 것으로 인해 熱을 없애는 地骨皮의 淸虛熱 효능을 설명한 것이다.

醫藥出版社. 1999. p.311. “方中薑桂合甘棗, 爲辛甘化陽, 芍藥合甘棗, 爲苦甘化陰, 陰陽和則得微汗而邪解矣.”

93) 張晶晶, 劉淵. 鄭欽安苦甘化陰法原理探討. 陝西中醫藥大學學報. 2018. 41(2). pp.9-11.

94) 清·鄭欽安 著, 周鴻飛 點校. 醫理真傳.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151. “辛甘化陽苦甘化陰, 乃用藥之子午鍼也.”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84. “欲令脾健(實), 氣無滯, 飽無久坐, 食無太酸, 無食一切生物, 宜甘宜淡.”

96)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2.

97) 清·張璐 撰. 本經逢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92. “《本經》主五內邪氣, 周痹風濕, 輕身不老, 取其甘淡化熱, 苦寒散濕, 濕散則痹者通, 化熱則五內安.”

Ⅲ. 고찰

지금까지 역대 醫書에 나타난 辛甘化陽과 酸甘化陰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원류를 본다면 成無己로 볼 수 있는데, 辛甘化陽은 『內經』의 ‘辛甘發散爲陽’ 혹은 運氣篇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酸甘化陰은 『傷寒論』 29조에서 芍藥의 味를 酸味로 인식하면서 나온 이론이었다. 이후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의미는 溫病學派 이후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溫病學派는 脾胃를 중시하여 辛開苦降法처럼 脾胃의 升降 실상을 회복하는 治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甘味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활용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기전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통으로 배합된 甘味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甘味를 중심으로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기전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기전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辛味, 酸味와 甘味의 조합을 통해 化陽, 化陰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의가들 중에서는 辛甘化陽을 ‘辛甘發散爲陽’을 통해 辛甘味의 조합으로 發散작용을 배가시킨다는 관점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경우 酸甘化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공통적으로 배합되는 甘味의 작용은 먼저 『素問·藏氣法時論』의 ‘甘以緩之’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緩의 작용은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슨하고 늘여지게 하여 끝내는 氣의 흐름을 정체시켜 정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辛味는 ‘辛以散之’로써 外부를 향해 發散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酸味는 ‘酸以收之’로써 內부를 향해 收斂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각각 甘味와 결합되면 發散과 收斂의 작용이 느슨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인체의 내부에 鬱滯되어 있는 邪氣 등을 發散시키거나 인체의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收斂시키기 위한 것은 정상적인 治法이므로 느슨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어떤 작용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는 發散과 收斂의 작용

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급격하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하면서 發散과 收斂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甘味는 甘入脾하고 脾는 陰陽氣血의 근원인데, 상대적으로 實證보다는 虛證의 상황에서 發散, 收斂을 원활히 일어나게 하기 위해 甘味를 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방제에서 湯劑가 급격하게 약효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丸劑를 사용하는 이유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化의 의미는 부족한 陽과 陰을 補하면서 순전한 陽과 陰의 작용을 질적으로 속도를 늦추며 늘어지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이해 가능하다.

다음으로 甘味는 비록 發散하는 陽의 속성에 속하는 味이기도 하지만, 五行 중 土에 해당하는 味이다. 그리고 土는 陽土, 陰土의 작용으로 인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陰陽을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陽에 해당하는 辛味와 결합할 때는 陽中之陰의 역할을 하고, 陰에 해당하는 酸味, 苦味, 鹹味와 결합할 때는 陰中之陽의 역할을 하여 각각 化陽, 化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味의 專一한 특성을 緩和시키는 것 역시 甘味의 緩의 작용의 범주에서 볼 수 있다.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을 동시에 활용하였을 때는 辛散으로 상대적으로 外證을 해결하는 辛甘化陽과, 酸收로 內證을 해결하는 酸甘化陰으로 인한 쌍방향의 조절을 통해 榮衛를 조화시키는 효능이 나타난다. 辛味와 酸味처럼 서로 편차가 큰 味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을 氣의 흐름상 ‘急’이라고 한다면 甘味의 작용으로 緩和시키면서 味를 조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⁹⁸⁾.

化陽과 化陰은 여러 의서의 설명에서 陽과 陰을 補하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辛味와 酸味는 각각 辛入肺와 酸入肝에 해당하는 肺와 肝의 本味이기도 하지만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肺와 肝의 所欲에 해당하는 收와 散의 작용에 있어서는 瀉하는 작용을 한다. 즉 本味와 所欲의 작용을 體用으로 연결한다

면 肺는 體陽用陰, 肝은 體陰用陽으로 辛味는 肺의 體를 補하지만 用을 瀉하며 酸味는 肝의 體를 補하지만 用을 瀉하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辛味로 인해 肺의 收하는 작용이 瀉해지고 肺에 저장되어 있던 陽氣가 陽의으로 작용하는 것을 辛甘化陽이라고 할 수 있으며, 酸味로 인해 肝의 散하는 작용이 瀉해지고 肝에 陰血이 저장되는 것을 酸甘化陰이라고 할 수 있다. 甘味는 또한 『素問·藏氣法時論』의 肝의 苦急한 것을 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甘味는 동시에 陰陽氣血의 근원인 脾胃를 補한다. 이러한 기전으로 化陽과 化陰이 補陽과 補陰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의미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은 辛味와 酸味가 각각 甘味와 합하여 여러 가지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化陽과 化陰은 일차적으로 陽과 陰을 補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發散이라는 陽의 작용과 斂肺, 止血 등의 陰의 작용을 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辛味와 甘味, 酸味와 甘味만 있다고 해서 같은 작용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두 味가 배합되었을 때 어떤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 다른 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辛甘味의 배합에서 辛味が 더 많다면 發散하는 작용이, 甘味が 더 많다면 緩하게 하면서 조절하고 補하는 작용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같은 味라고 하더라도 氣와 歸經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桂枝의 辛味와 乾薑의 辛味는 甘味와 배합되어 다른 작용을 할 것이다.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작용에 陽과 陰을 補하는 작용이 있지만, 陽과 陰을 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補陽藥과 補陰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邪氣가 없다면 陰陽의 虛證을 보하는 데는 補陽藥과 補陰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補陽藥과 補陰藥의 味는 辛甘味 혹은 酸甘味로 되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⁹⁹⁾, 단일한 甘味로 되어 있는 本草가

98) 신상원 외 3인. 甘草의 調和諸藥 효능에 대한 고찰.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p.193.

99) 本草學 교과서에 근거하여 辛甘味의 補陽藥은 巴戟天(甘辛), 淫羊藿(辛甘), 杜仲(甘微辛), 菟絲子(辛甘), 韭子(辛甘)

더 많다.

甘味만으로 補한다면 緩하는 특성으로 인해 氣의 흐름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방법 혹은 다른 味를 甘味와 합하여 補陽, 補陰하는 것이 補陽藥과 補陰藥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은 甘味와 결합되는 味로 인해 氣에 운동성을 부여하여 補하되 滯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辛味와 酸味만 甘味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鹹味, 苦味, 淡味 등도 원칙적으로 甘味와 결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서술도 일부 의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辛甘化陽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으나 酸甘化陰은 苦甘化陰 등 다른 용어도 있었다. 鹹味, 苦味, 淡味와 甘味의 결합은 상대적으로 熱 등 邪氣의 제거에 더 초점이 있지만 酸味와 甘味의 결합은 상대적으로 補하는 작용에 중점을 두는 표현이다.

酸味와 辛味는 앞서 『素問·藏氣法時論』에서 본 것처럼 서로 반대가 되는 木과 金에 해당하는 味이다. 그리고 木, 金은 土를 중심으로 火, 水를 축으로 하면서 左升右降의 用에 해당한다. 火에 해당하는 苦味는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發泄하는 少陰에 해당하고, 水에 해당하는 鹹味는 甘味와 달리 지속적인 죽음의 太陽에 해당하므로¹⁰⁰⁾ 작용의 관점에서 辛甘化陽, 酸甘化陰의 용어를 대표로 사용할 수 있다.

IV. 결론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이론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이론은 成無己를 연원으로 한다. 이 중 酸甘化陰은 『傷寒論』 29조의 甘草乾薑湯과 芍藥甘草湯을 대비하면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芍藥의 味에 따라 이견이 있다.
2.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용어는 清代에 溫病學派

이다. 酸甘味의 補陰藥은 桑椹子(甘酸), 旱蓮草(甘酸)이다. 추가로 苦甘味, 鹹甘味의 補陰藥은 麥門冬(甘微苦), 天門冬(甘苦), 龜板(鹹甘)이다. (한외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10.)

100) 백유상.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7. 20(4). p.84, 88.

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서에서도 辛甘化陽과 酸甘化陰 관련 용어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辛味와 酸味 외에 鹹味, 苦味, 淡味와 甘味와의 결합도 찾아볼 수 있다.

3.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에서 甘味の 역할은 급격하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하면서 發散과 收斂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五行 중 土에 해당하는 味로 볼 때 전체적으로 陰陽을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4.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化陽과 化陰은 陽과 陰을 補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陽의 작용과 陰의 작용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두 味가 배합되었을 때 어떤 것이 우세하나에 따라 다른 작용이 일어나고 같은 味라고 하더라도 本草에 따라 구체적인 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補하는 작용이 補陽藥과 補陰藥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은 甘味와 결합되는 味로 인해 氣에 운동성을 부여하여 補하되 滯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辛甘化陽과 酸甘化陰의 이론처럼 五味의 相合만으로 방제를 분석할 수는 없다. 어떤 方劑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味 외에도 氣의 相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方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구성 本草의 성분의 합을 바탕으로 효능을 밝히는 것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상에서 氣味の 相合 이론을 방법론으로 하여 方劑를 실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辛味와 甘味, 酸味와 甘味가 배합된 여러 처방들의 이해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어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1. 清·柯琴 編撰, 張海鵬 陳潤花 校注. 傷寒來蘇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2. 清·顧觀光 輯, 楊鵬舉 校注. 神農本草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7.
3. 清·高士宗 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4. 김정범 편저.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5. 梁·陶弘景 集, 尙志鈞 輯校. 名醫別錄(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4), (6).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7. 清·雷豐 著, 楊梅香 鄭金生 校點. 時病論.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10.
8. 清·石寿棠 撰. 醫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9.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清·王子接 著.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11. 李順保 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12. 李劉坤 主編.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吳鞠通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長沙方歌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注解傷寒論』, 『傷寒明理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15. 清·張璐 撰. 本經逢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16. 田思勝 主編. 朱肱龐安時醫學全書『南陽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7.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8. 清·鄭欽安 著, 周鴻飛 點校. 醫理真傳. 北京, 學苑出版社. 2009.
19. 清·鄭欽安 著, 周鴻飛 點校. 醫法圓通. 北京, 學苑出版社. 2009.
20. 清·葉天士 原著, 華岫雲 編訂. 臨證指南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5.
21.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10.
22. 한의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편저. 韓醫方劑學 각론 上. 과주. 군자출판사. 2020.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5. 백유상.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6. 백유상. 五味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4).
27. 신상원 외 3인. 甘草의 調和諸藥 효능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https://doi.org/10.14369/jkmc.2020.33.1.179>
28. 王騰飛 외 5인. 從“五味合化”思想談“辛甘化陽, 酸甘化陰”. 中醫雜誌. 2013. 54(19).
29. 姚建平. 馬書娟. “辛甘化陽與酸甘化陰”陰陽屬性解析. 光明中醫. 2010. 25(1).
30. 劉劍. 酸甘化陰法的理論源流及臨床應用. 廣西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31. 李海鵬. 氣味配伍在《溫病條辨》中的靈活運用.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3. 15(11).
32. 張晶晶, 劉淵. 鄭欽安甘化陰法原理探討. 陝西中醫藥大學學報. 2018. 41(2).
33. 趙學俊, 김호현, 임강현. 本草의 同味異用에 對한 研究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위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34. 章蕾. 辛甘化陽法的理論源流與臨床應用. 湖南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35.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 Jan. 2022] : Available from: URL: <https://ctext.org>